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유익한 「건설기술|쌍용」을 만듭니다.

현장에서얻은귀중한교훈, 새로적용하는기술, 혼자만알고있기엔아까운노하우를「건설기술|쌍용」에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귀한지식과경험을정성껏엮어보배로만들어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 기술강좌 · 특허광장 · 현장리포트 · 체험기 · Q&A 등에직접참여하고,「건설기술|쌍용」에서다룰만한참신한기획거리도알려주세요. 보내주신기술정보를「건설기술|쌍용」에소개하고, 참여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쌍용인의동반자「건설기술|쌍용」은언제나여러분앞에활짝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 「건설기술|쌍용」을위해일하게된새얼굴을소개합니다.

편집위원
기술개발부 **장동운** 과장
02)3433-7727
safety@ssyenc.co.kr

편집위원
남광토건기술개발부 **하신목** 차장
02)3433-7720
hsmmm@namkwang.co.kr

원고접수처 ›››› 건설기술| 쌍용 을함께만드는편집 · 실무위원들

편집위원장	이세웅상무(7094, swlee@ssyenc.co.kr)	
기술개발부	장동운과장(7727, safety@ssyenc.co.kr)	김상훈사원(7712, madmax91@ssyenc.co.kr)
기 획 부	최세영과장(7117,chltpdud@ssyenc.co.kr)	김종범사원(7148, tiger@ssyenc.co.kr)
토목기술부	이기환차장(7772, ikhjin@ssyenc.co.kr)	조영호대리(7769, cyh4@ssyenc.co.kr)
남광토건 기술개발부	하신목차장(7720, hsmmm@namkwang.co.kr	김종두대리(7730, kimjd@namkwang.co.kr)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6·9·12월) 1일에봄·여름·가을·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건설기술|쌍용

2002년 가을
통권 제24호(비매품)

발 행 인 김석준
편집/실무위원 편집위원장: 이세웅
편집위원: 홍종우 · 장동운 · 최세영 · 하신목
실무위원: 조영호 · 김상훈 · 김종범 · 김종두
발 행 일 2002. 9. 1
발 행 처 쌍용건설주식회사서울시송파구신천동7-23 (TEL : 3433-7712)
e-mail:madmax91@ssyenc.co.kr
tiger@ssyenc.co.kr
제 작 처 (주)대통기획(TEL:2269-3613)

㈜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 · 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21세기의화두 + 환경이야기

나무에도 환경마크가 있다?

열대우림이심각하게파괴되자이를보호하기위해열대산원목을불매해야한다는주장이일고있다. 특히선진국에서이런움직임이대중화되고있는데, 네덜란드의경우무려 50%에 이르는시(市)정부가열대산원목의사용을금지했다. 또미국에서는뉴욕 · 캘리포니아 · 애리조나 · 미니애폴리스등을중심으로 공공건축사업에 열대산원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산업으로부터 열대우림을 좀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르고 있다. 나무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 목재인증제도 ’가 바로 그것으로,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0년미국 ‘ 열대우림보호연맹 ’이도입한 ‘ 스마트우드 ’ 마크다. 그러나제도만으로환경이 보호되는것은아니다. 목재소비국들과우리가꾸준한관심을갖고보호할때만이열대우림은 보호될수있다.

생각해봅시다

중남이 ·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는지구생물의 80%가살고있는생물종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20세기 초만해도지구표면의 16%를차지하던열대우림은현재6-7% 밖에남아있지않다. 지금도 1분마다 축구장 10~20개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이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이곳에 서식하는 600만 종의 생물 역시 영원히멸종하고말것이다.